

날짜: 5786 년, 8 월 21 일 (2025 년 11 월 12 일)

토라 문: 리브카의 생애

주제: 리브카의 선행

창세기 24 장 17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미드라시는 엘리에제르가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젊은 여성들 중 유독 리브카를 향해 달려간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라시는 엘리에제르가 리브카에게 달려간 이유를, 그녀에게 물이 스스로 올라오는 기적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미드라시는 그가 그녀의 선행(善行)을 근거로 그녀에게 달려갔다고 진술합니다. 에이츠 요세프는, 물이 솟아오른 현상 그 자체만으로는 그녀가 이사크에게 합당한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이 기적은 그녀가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인물임을 시사하는 징표였으며, 엘리에제르는 이를 통해 그녀를 시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람반은 미드라시가 히브리어 “וַתִּמְלֵךְ (va-t'malle)” — 즉 “그녀가 채웠다”라는 표현 — 을 통해 물이 솟아오른 기적을 유추하였다고 분석하며, 그 반대로 24 장 20 절에 등장하는 “וַתִּשֶׁא (va-tish'av)” — 즉 “그녀가 길었다”는 표현 — 에서는 해당 기적이 반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스스로 올라온 것은 오직 리브카가 자신의 용도로 물을 길었을 때에 한정되며, 그녀가 엘리에제르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을 때에는 실제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만 했던 것이다.

『나할라트 제브』는 『아보트』 5 장 26 절을 인용하며, 하나의 미츠바 (계명 수행 혹은 선행)에 대한 보상은 그것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노력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리브카가 물을 직접 길어 낙타들에게 먹인 수고는 그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리브카는 이러한 원리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엘리에제르에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גַּם לַגְמִלִּיךָ אֶשְׂאֵב)”라고 자원하였습니다. 그녀는 계명을 수행함에 있어 기꺼이 수고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적인 기적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드라시가 엘리에제르가 리브카의 선행을 보고 그녀에게 달려갔다고 해석한 것은, 엘리에제르가 그녀에게 일어난 기적만으로 그녀의 적합성을 확신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 것입니다. 엘리에제르가 이사크의 배우자가 될 여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타인을 위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친절함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아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물을 길어 그의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는 모습을 통해 그러한 내면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제르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요청하였을 때, 미드라시는 그가 절제의 덕목을 실천하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을 청하였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창세기 24 장 21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제르는 기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리브카를

응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에제르는 리브카를 시험하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인위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단순한 요청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성품은 이러한 사소하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의로운 자는 필요에 즉각 반응하며, 지체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윤리적 통찰과 부합합니다. 엘리에제르가 물을 요청한 의도는 단지 개인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영적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리브카의 반응은 그녀의 자애로움과 선의가 본능적 차원에서 우러나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고, 이 순간은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닌, 보다 깊은 영적 인식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샬롬